

“일본을 돕자” 한마음 한뜻

캠페인 1주일만에 2억원 넘어 전국 불자와 단체 참여 줄이어

대지진·쓰나미·방사능 누출 등 유례없는 대재앙을 당한 일본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사상 최악의 대지진 피해 일본에 자비의 손길을 보낸다' 캠페인에 나선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 불교신문(사장 수불스님)이 모금을 시작한지 일주일 만에 2억원 이상의 성금을 모았다. ▶성금명단 2번

지난 14일 시작한 일본 피해 모금에 현재(22일) 현장 방문 및 계좌이체 등으로 200여 건의 성금이 접수돼 2억6609만7730원이 모였다. 지난해 아이티 대지진 때 일주일간 성금 1억2552만7000원이 모인 것보다 열기가 더 뜨겁다. 현재 전국 교구본·말사를 비롯해 불자들과 일반시민, 단체 등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어 참여하려는 이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3교구본사 신홍사 주지 우송스님과 서울 진관사 주지 계호스님, 국제구호단체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스님은 21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아름다운동행에 각각 1000만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대재앙에 처한 일본을 보면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 뿐”이라며 “피해 지원을

위해 흔쾌히 힘을 보태줘서 고맙고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 성웅스님도 22일 일본 지진피해 돕기 성금으로 아름다운동행에 1000만원을 기탁했다. 멀리 해외에서도 정성을 보냈다. 영국 킹스턴 연화사 주지 지수스님

은 불자들과 기금을 모아 200만원을 전했다. 이밖에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도 일본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15일부터 모금활동을 시작한 조계사는 19일 일주문 앞에서

조계사 대학생 범회 소속 청년 2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모금공연을 벌인데 이어, 20일 유아범회, 초·중·고등학생범회, 원심회, 청년회 등이 동참해 자비성금모금을 위한 오체투지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19일 봉행한 민족문화수호결의대회 현장에서 1억5000만원의 성금을 모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통도사는 이날 행사를 실내행사로 전환해 야외법회에 쓰일 범회비용을 아껴 통도사 본사에서 5000만원을 마련했고, 구룡사에서 5000만원, 통도사 주지 우송스님 1000만원, 표창사 1000만원, 통도사 신도회장 1000만원, 문수암 1000만원, 내원사, 석남사 등에서 1000만 원 등을 기부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주지 정여스님과 조계종 부산연합회장 수불스님도 17일 부산 민족전통문화수호대법회 현장에서 대지진 희생자를 위한 성금을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전달해 종단 중진 스님으로서 출선수범했다. 이와 함께 백명숙 파라미타청소녀연합회 부산지부 회장도 이날 1000만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지방문화팀



대재앙을 당한 일본을 돕기 위한 '아름다운 동행'이 21일에도 계속됐다. 왼쪽부터 군종교구장 자광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신홍사 주지 우송스님.

“한국불교 중심에 조계종 있다”

종단 정통성 집대성한 ‘한국불교사’ 발간

종단에서 한국불교사를 종합적으로 서술한 책이 처음 발간됐다. 이번에 선보인 <한국불교사>(사진)는 불교 전래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집대성한 책이다. 한국불교의 정통성과 대표성을 지닌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사를 망라했다. 특히 한국불교의 대표적 수행가풍인 선(禪)과 화쟁(和諍) 정신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밖에도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한국불교의 중요 사상을 망라했으며, 누구나 알기 쉽게 한국불교사를 배울 수 있도록 편찬했다.

<한국불교사>는 이전에 발간한 <조계종 고종서편>과 <조계종 근

현대편>을 저본(底本)으로 삼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에서 편찬 작업을 진행했다. 감수는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스님과 김상현 교수가 맡았다.

포교원장 혜충스님은 편찬사에서 “역사와 사상, 문화적으로 볼 때 한국불교의 중심에는 조계종의 정신과 문화가 우뚝 서 있다”면서 “조계종사를 중심으로 한국불교를 통사적으로 조명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포교연구실장 정호스님도 머리말에서 “한국불교의 유구한 역사와 다양한 모습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한국불교사>를 펴내게 되었다”면서 “한국불교의 참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

불교사> 출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정효스님은 “사회적으로 역사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스님과 불자들이 한국불교사를 바르게 이해하는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단에서 발간한 <한국불교사>는 앞으로 스님들의 기본교육기관에서 필수교재로 선정됐으며, 재가 불자들의 교재로도 사용된다.

이성수 기자 soolee@bulgyo.com

社告

대지진 피해 일본에 자비의 손길을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은 일본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구호를 지원하고, 구호 물품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0029-6115-71
(예금주: 아름다운동행)

농협 053-01-247901
(예금주: 불교신문사)

후원문의

아름다운동행 02-737-9595
불교신문사 02-730-4488

후원안내

www.thenanum.org



부산 해원정사는 지난 20일 어린이법회에서 부처님오신날 맞이 연등만들기를 했다. 참가 어린이들은 신기해하면서 정성껏 연등을 만들었다.

“부처님 생일축하 연등 만들어요”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② 부산 해원정사 어린이법회

지난 20일 부산 해원정사(주지 원허스님) 어린이 일요법회. 다른 날보다 1시간 일찍 와서 부처님오신날 연등을 만들기 위해 세쌍불자들이 종종걸음으로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일요일에 늦잠 실패 자고 집에서 TV 보고 싶을 텐데, 대견스럽게도 절에 왔구나.” 지나가는 보살님들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들을 반기자, “집에 있으면 공부해야 하니까, 절에 오게 훨씬 좋아요”라고 저마다 퐁퐁하게 말한다. 삼삼오오 웃음꽃을 피우면서 법당 안에 총집합. 문이월(58) 보살을 비롯해 몇몇 신도들이 ‘명석’을 깔아놓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등에 연잎을 붙이는 방

연잎 붙이는 눈 ‘반짝’ 마음속으로 소원 빌어

법을 차근차근 설명하자, 아이들은 눈을 빛내면서 집중한다.

“부처님 생신 때 환한 연등을 밝히려면, 연잎 한 장 한 장에 정성을 담아서 붙여야 합니다. 자기가 마음 속으로 바라는 소원이 있으면 연잎을 붙이면서 부처님과 마음속으로 이야기 하세요. 아마 부처님이 꼭 소원을 들어주실걸요?”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박정화씨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이들은 고사리 손에 풀을 묻혀서 연잎을 붙여나갔다. 조만지(금정초 5) 어린이는 “가족들이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면서 다소 어른스러운 ‘소원’을 말했다. 옆에 있는 동갑내기 임가을(배산초 5) 어린이는 “지금은 반에서 7등을

했지만 더 열심히 공부해서 꼭 1등을 하고 말겠다”고 말했다.

연잎을 틈에서 묵묵히 연잎을 붙이던 김주리(거제초 4) 어린이는 “일본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주변 친구들의 주목을 받았다. 주리는 “일본 사람들이 하루빨리 잘 살게 되길 바라고, 우리나라도 그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했다.

남동생 동우(거제초 1) 손을 잡고 나란히 어린이법회에 참석해서 이 날 연등을 만든 장희송(거제초 4) 어린이는 “장래희망이 화가라서 연등 만드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다”며 어른보다 더 멋진 연등을 만들어냈다. 해원정사 유치원 출신인 주인하(남문초 1) 어린이는 “날마다 부처님오신날이 있으면 좋겠다”며 “일년 내내 언니들과 함께 연등을 만들면서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부산=하정은 기자

알립니다



페이스북·트위터 서비스 시작합니다

불교신문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전용공간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올해 초 불교계 주요소식을 유행어와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며 미디어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한 불교신문이 불자와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SNS를 시작합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공간을 통해 신속한 교계 소식과 함께 실시간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불교신문을 만나보십시오. 불교신문은 앞으로도 미래 미디어 환경을 선도하는

불교계 대표 언론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독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불교신문 SNS를 만나려면 인터넷 주소창에서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ibulgyo)와 트위터 전용공간(www.twitter.com/ibulgyo)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도 각 SNS 어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검색창에서 ‘불교신문(페이스북)’ ‘ibulgyo(트위터)’를 입력하면 불교신문 SNS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신문

쌍계사 보살계 대법회

쌍계사는 1200여년 전 진감국사께서 창건한 이래 계맥의 중흥조이신 대은 금담율사께서 전통적인 계법을 전하시던 전법 도량으로써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하여 불기2555년(2011) 정기보살계 대법회와 대장경 정대불사 및 육조봉찬회 총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여러 사부대중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덕과 지혜를 닦고 생사해탈의 법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장 소 : 쌍계사 금강계단

- 일 시 : 불기2555년(2011) 4월 7일~9일(음 3월 5일 ~ 7일까지 3일간)
 - 보살계 입 재 : 4월 7일(음3월5일) 오후 2시
 - 장경정대불사 : 4월 9일(음3월7일) 오전 8시

●수계금 : 사만원(W40,000)

- 접수처 : 하동 쌍계사(055)883-1901 부천 석왕사(032)663-7771
부산 해원정사(051)866-7771 통영 연화사(055)641-3670
이천 행복선원(031)631-5117

●증명 : 고산 대종사

- 계사 : 전계대화상 보광 대화상
갈마아사리 지하 대화상
교수아사리 일해 대화상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번지 www.ssanggyesa.net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주지 경담 성조 합장



쌍계사 금강계단



진감국사 대공탑비